

# 광주건설협회장 선거 무산 장기간 리더십 공백 불가피

법원, 김명기 후보 등록 효력정지  
또 회장 직무대행체제 전환 ‘혼란’  
건설업계 결속력 저해 우려 확산

광주 건설업계 수장을 뽑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선거가 법원의 특정 후보자 등록에 대한 자격 효력정지 결정으로 무산됐다.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장기간 리더십 부재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의 조직 파행과 대외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할 예정이었던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대표회원 총회가 불발됐다. 사유는 김명기 전 회장에 대한 법원의 회장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및 대표회원 총회 개최 금지에 따른 것이다. 대표회원들은 대표회원 총회 대신 간담회 형

식으로 장기간 갈등 국면에 처한 광주시회 정상화를 위한 의견을 취합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회장 선거 후보 중 한 명인 조성래 전 부회장 측이 김 전 회장의 후보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했다. 법원이 소송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김 전 회장은 후보 자격을 상실하면서 선거 절차 전체가 멈춰 섰다. 이에 따라 광주시회는 법원이 선임한 법무법인 맥의 신광섭 변호사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임시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문제는 광주시회가 이미 상당 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는 점이다. 앞서 김명기 전 회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인해 황인일 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또다시 외부 인사에 의한 과도기적 운영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실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침

체 등 건설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내부 감투싸움’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법정 다툼으로 선거마저 무산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지역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나 지자체에 전달할 창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외적인 시선 역시 차갑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설업계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터져 나온 이번 사태는 협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광주시회는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재선거 일정을 조율해야 하지만, 후보 자격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 실제 선거가 치러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되는 리더십 부재 속에서 광주 건설업계가 혼란을 수습하고 자정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재만 기자

## IT·바이오 섹터 핵심종목 관심을

주간 증시 전망



김 경 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12월17일~12월23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3.2%, 코스닥은 0.6%가량 상승했다. 해당 기간 외국인은 코스피 2천억원 순매수, 코스닥은 3천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코스피 2조7천억원, 코스닥은 3천억원 순매수했다. 단연 반도체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전후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기관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각각 1조원가량씩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소액이지만 코스피를 순매도하는 흐름이었는데, 국내 시장은 환율 문제와 11월 들어 외국인이 16조원 이상 순매도하는 수급 문제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다. 만약 환율이 내년 초 안정화돼서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지수상단은 생각보다 가볍게 뚫릴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2025년을 마무리할 시점이 왔다. 돌이켜보면 작년 말 한국 증시는 짙은 비관론에 휩싸여 있었는데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 국내 성장률 둔화,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라는 삼중고 속에 한 해를 시작했지만 상반기에는 조선/방산/원전이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꽃을 피우며 코스피 4000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글로벌 주요 증시 중 압도적인 성과(YTD +67.6%)를 기록하며 꼴찌에서 1등으로 도약한 기록적인 한 해였다. 2026년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기존 의견대로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 우호적인 글로벌 성장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성장 스토리와 맞물린 기업들의 실적 상황이 시장을 레벨업 시킬 것이고 로봇과 우주항공까지 더해져 성장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하반기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 연준의 금리 인하 종료 시점(2026년 하반기 중 예상), 미국 중간선거(11월), 미중 관세 유예 만료(11월) 등 굵직한 대외변수들이 대기하고 있어 만약 상반기에 시장이 많이 올라온다면 일부 주식 비중을 줄여놓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이다. 올해 IPO 시장이 하반기 들어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기조와 미국 금리 인하 사이를 진입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에서 결정되고도 흔히 말하는 썸상(공모가 300% 상승 시점)을 가기도 하고, 프로티나 같은 종목은 7월 상장 후 공모가 대비 68배 상승했고 에임디바이오는 12월4일 상장 후 60배 상승 중이다. 그 외 스파크(SPAC) 상장주식들도 상장 첫날 100%-200%까지 급등하는 등 시장은 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공모주 투자다. 주식에 상장하게 되면 일단 시장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고 상장 당일 유통물량도 막대한 기간에 따라 한정돼있기 때문에 비중으로 보면 80% 이상의 신규 상장주가 공모가 대비 높은 주가로 상장하기 때문이다. 각 증권사별로 계좌 관리를 하고 매번 청약 때마다 챙기고 상장일 때도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안 하고 계시거나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은 공모주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공모주 시장의 당근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새는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펀드 솔루션이나 펀드 다모아 같은 펀드, EF T비교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1개월, 6개월 기간 수익률과 펀드 설정액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월에는 IT와 바이오 큰 행사인 CES 세계 최대 가전/IT박람회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각각 1월 6-9일 1월 12-15일에 있다. 증권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 해당 섹터에 핵심종목을 연말에 모아가 볼 만하고 CES에서 5년전 인수한 보스턴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 시연하고 AI로보틱스 확장 전략을 발표하기로 한 현대차/현대모비스와 연말 조정을 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을 추천한다.

##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연말 맞아 취약계층 아동 나눔

‘양궁단 산타’ 따뜻한 동행

김성은·안산 총 1천만원 기부

광주은행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김성은 감독과 안산 선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기부금 전달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광주은행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연말 나눔 활동의 취지에 공감해, 광주은행의 구성원으로서 기업 차원의 사회공헌에 뜻을 함께하며 참여한 것이다. 전달된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방한용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되며, 겨울 패딩 구매 등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은 감독과 안산 선수는 “작은 정성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싶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김성은 감독과 안산 선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해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의 기부금 전달에 동참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광주·전남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팀을 제외하고 기업이 창단한 최초의 양궁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창단 이후 명장 김성은 감독의 세심한 지도 아래 최미선, 안산, 최예진, 곽진영, 김정은 선수 등이 활약하며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 성장하고 있다. 광주은행이 자체 스포츠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 지역 인재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은 창단 이래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실력을 입증해 왔으며 기부와 재능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재만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잊지 못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Canon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지금부터  
캐논 타이밍

### 2025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의 100% 사은품 증정!

제품 구매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 2025년 12월 31일(수)
제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2025년 10월 15일(수) ~ 2026년 1월 7일(수)

**납품 전문업체**

캐논스토어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캐논코리아총판	062)350-8397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드1층 139호)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하늘아래 단 하나의 터

##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법당형 봉안당 시스템** 해원정사 VIP추모원은

- 1 편리한 접근성**  
광주광역시 중심 동구에 위치하며 어디에서나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2 명품안치단**  
극락전 VIP안치단은 고인이 유품을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더 넓고 화려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 3 극락전VIP추모관**  
내부에서 골고루 자연재광이 되도록 설계 하였고, 한은·한신시스템으로 고인을 쾌적하게 모십니다.
- 4 해원정사 추모원을 중심으로 문화행사**
  - 명상과 힐링 프로그램
  - 매년 가을에 추모산사음악회 개최
  - 해원정사 추모원에 모시는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스님께서 매일 기도를 해드립니다.
  - 매월 음력18일 지장재일과 백중, 구정, 추석 등 매년 15회 합동제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 추모관은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고, 보안은 5중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프리미엄 봉안당 지금 준비가 가장 현명  
10년후면 더 비싸집니다. 봉안당은 부동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리 구매하여 비용을 절감하세요!

VIP 가격표 (관리비별도)	
개인 단	400백만원 ~
부부 단	800백만원 ~ 2,400백만원

한국불교태고종 해원정사 추모원

광주광역시 동구 분산길 100  
www.haewonjungsas.com

대표전화 | 062-234-4576